

##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

연은모<sup>1</sup>, 최효식<sup>2\*</sup>

<sup>1</sup>영남대학교 교양학부, <sup>2</sup>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The Relations of Child's and Parent's Self-Esteem and Child's Career Maturity: Focused on Multi-Group Path Analysis by Gender

Eun Mo Yeon<sup>1</sup>, Hyo-Sik Choi<sup>2\*</sup>

<sup>1</sup>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가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0차(2015년) 자료의 30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분석과 다집단 경로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도( $\beta=.519, p<.0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 $\beta=.247, p<.01$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통제되었을 때 자녀의 진로성숙도( $\beta=.086, p>.05$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집단 경로분석 결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크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뿐 아니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s and parent's self-esteem relates to children's career maturity.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d how their influences would differ depending on gender. Data from 302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4, 5, and 6 who participated in the 10th year survey (2015) were analyzed to verify structural relationships including multi-group path analysis by gende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self-esteem ( $\beta=.519, p<.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s their career maturity as well as their father's ( $\beta=.247, p<.01$ ). However, mother's self-esteem ( $\beta=.086, p>.05$ )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self-esteem. Second, the results of the multi-group path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s among relationships. This study showe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educational and counseling support to increase children's and father's self-esteem.

**Keywords** : Children's self-esteem, Mother's self-esteem, Father's self-esteem, Career maturity, Multiple group 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Tel: +82-33-260-6435 email: s970218@cnue.ac.kr

Received October 1, 2018

Revised October 15, 2018

Accepted January 4, 2019

Published January 31, 2019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은 발달 단계별로 요구되는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 2 재인용]. 진로성숙 수준이 높다는 것은 발달 단계별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과제들에 대처하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진로와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를 계발시키는 학습자는 진로 관련 정보를 모으는 능력과 합리적인 진로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진로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5], 진로탐색의 실제적인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시기부터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3, 6]. 특히, 진로성숙도는 학업동기[7], 수업참여[8], 학교생활만족도[9], 학교생활적응[10-11] 등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들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2-14].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다. 첫째,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 변인이 많은 영향[15-16]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둘째,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들 또한 대다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을 구분하지 않은 채 부모라는 통합 변인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심리적 특성과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못했다. 셋째, 초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도 또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들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 [17, 18 재인용], 사회, 가족,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19]. 자아존중감은 인간 기능의 가장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에 [20]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친다([18, 21-22]). 많은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에 인지, 정서, 행동 측면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인지 전략을 사용하며, 어려운 과제 상황에서 더 많은 지속성을 보인다[23-24]. 특히,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다[25].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높으며 실패에 매우 민감하다[26-27]. 이와 같은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28].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11], 많은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9-3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 또한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3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4]. 이는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보다 진로 탐색 및 계획 활동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35].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진로와 관련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동기화시키고, 목표를 성취하도록 참여하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36]. 자아존중감이 높을 때 학업적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고, 학업적 열망이 높을 뿐 아니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기 때문에[37-39] 진로 탐색 및 계획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의 특성은 자녀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40-41]. 부모의 온화성, 자녀와의 애착 수준, 자율성 지지 등은 자녀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대[42]. 특히 부모의 양육 관련 특성은 부모의 교육 수준,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다 자녀의 진로 발달에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부모의 양육 방식 또한 자녀의 진로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은 자녀의 진로 탐색을 강화한다[43].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이와 같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다[44-45].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어머니는 권위 있는 양육 방식을 사용할 뿐 아니라[46]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으며,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경향성이 있다[47].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또한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45, 48]. 아버지는 자녀 발달에 어머니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49-50]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어머니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 간 관계에 집중하였다[51].

또한, 진로성숙도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2-5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준을 보이는 진로성숙도에 부모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서도 차별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한 대다수 연구들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둘째, 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진로 발달 간 관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이 어머니에 집중한 것과 달리, 자녀의 인지, 정서, 사회성, 행동 발달에 어머니와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49-50]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는 차별점이 있다. 셋째,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들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진로 탐색 및 인식의 시작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진로 발달 초기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할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가 다른지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에 기초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 2)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 2. 본론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분석과 다집단 경로분석 방법에 기초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영향 관계에 차별적인 특징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주관으로 수집된 한국복지패널 10차(2015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중단면 조사이며, 전국 지역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표집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54]. 본 연구에서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10차 자료 중 가구원용의 부모 응답 자료와 아동 부가조사 자료의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응답 자료가 있는 30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 가설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연구 도구

### 2.4.1 자녀의 자아존중감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10차) 아동 부가조사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3문항 중 신뢰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1문항(‘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55].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85로 확인되었다.

### 2.4.2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10차) 가구원용 자료의 정신건강 측정 문항 중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0문항 중 신뢰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1문항(‘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을 제외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55].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어머니 .79, 아버지 .80으로 확인되었다.

### 2.4.3 자녀의 진로성숙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10차) 아동 부가조사의 아동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2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1점) ~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55].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는 .85로 확인되었다.

## 2.5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인 한국복지패널 10차(2015년) 자료는 국가통계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의 자료 사용 신청 및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PSS 20.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측정학적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측정변인의 기술통계와 정규성 가정이 성립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넷째, 구조방정식 분석은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에 기초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집중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은 최대우도법에 기초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chi^2$ , TLI, CFI, RMSEA, SRMR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충분한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0 이상, 절대적합지수인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s),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8 이하 일 때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56-57]. 1요인으로 구성된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는 문항 묶기를 활용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58]. 다섯째, 다집단 경로 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증을 하였다. 동일성 모형 간 적합도 차이 검증을 위해  $\chi^2$  차이 검증, CFI 차이 검증, RMSEA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의 기준과 달리, 모형 간 적합도 차이 검증 시에는 CFI 차이 검증은 적합도 지수 차이가 .01 이상, RMSEA 차이 검증은 적합도 지수 차이가 .015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모형 간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59-60].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자녀와 부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 143명(47.4%), 여아 159명(52.6%), 학년은 4학년 97명(32.1%), 5학년 104명(34.4%), 6학년 101명(33.4%)이다. 어머니의 출생년도는 1960년대생 36명(11.9%), 1970년대생 252명(83.4%), 1980년대생 14명(4.6%), 아버지의 출생년도는 1950년대생 4명(1.3%), 1960년대생 90명(29.8%), 1970년대생 201명(66.6%), 1980년대생 7명(2.3%)이다. 어머니의 근로 유형은 임금근로자 146명(48.3%), 자영업, 고용주 12명(4.0%), 무급가족종사자 11명(3.6%), 미취업자 133명(44.0%)이며, 아버지의 근로 유형은 임금근로자 221명(73.2%), 자영업, 고용주 68명(22.5%), 미취업자 13명(4.3%)이다. 균등화된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60% 이상인 일반가구 276가구(91.4%), 60% 미만인 저소득가구 26가구(8.6%)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2)

Variables	Category	n	%
Children's sex	male	143	47.4
	female	159	52.6
Children's grade	4	97	32.1
	5	104	34.4
	6	101	33.4
Mother's birth year	1960-1969	36	11.9
	1970-1979	252	83.4
	1980-1989	14	4.6
	1950-1959	4	1.3
Father's birth year	1960-1969	90	29.8
	1970-1979	201	66.6
	1980-1989	7	2.3
Mother's working type	paid-employed	146	48.3
	Self-employed	12	4.0
	non paid-employed	11	3.6
	non-employed	133	44.0
Father's working type	paid-employed	221	73.2
	Self-employed	68	22.5
	non-employed	13	4.3
Income class by equivalence scale	non low-income house hold	276	91.4
	low-income house hold	26	8.6

### 3.2 기술통계

모수 추정 방법인 최대우도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변인의 정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규성 가정이 전제되는지 확인한 결과 절대값 기준으로 왜도 3, 첨도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61].

측정변인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대체로 정적 상관의 패턴을 보였지만 상관계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 간에는 정적 상관의 패턴이 확인되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적 상관의 패턴이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모두 자녀의 진로성숙도와 정적 상관의 패턴이 나타났다.

### 3.3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  ( $df=45$ ,  $N=302$ )=57.230,  $p>.05$ , TLI=.990, CFI=.993, RMSEA=.030(90% 신뢰구간=.000~.051), SRMR=.036으로 확인되어 측정변인과 잠재변인 간 관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측정모형이 집중타당도, 변별타당도를 확보했는지 확인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요인부하량의 표준화 계수값이 모두 수용 가능한 지수인 .5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수용 가능한 지수인 .5이상,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또한 수용가능한 지수인 .7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모든 잠재변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과 AVE값을 비교한 결과 모두 AVE 값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변별타당도를 확보했다고 판단하였다[62-65].

### 3.4 구조모형 검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을 [Fig. 1] 과 같이 설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chi^2$  ( $df=45$ ,  $N=302$ )=57.230,  $p>.05$ , TLI=.990, CFI=.993, RMSEA=.030(90% 신뢰구간=.000~.051), SRMR=.036로 확인되어 타당한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모형은 진로성숙도 변량의 33.1%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 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보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 $\beta=-.086$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Table 2. Pearson's correlation matrix,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3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698**	1										
3	.681**	.680**	1									
4	.096	.109	.107	1								
5	.119*	.118*	.145*	.667**	1							
6	-.026	-.021	-.010	.569**	.588**	1						
7	.142*	.156**	.073	.574**	.450**	.366**	1					
8	.141*	.089	.078	.442**	.530**	.332**	.660**	1				
9	-.012	.032	-.038	.436**	.389**	.522**	.594**	.603**	1			
10	.372**	.324**	.287**	.089	.132*	.063	.170**	.174**	.156**	1		
11	.378**	.385**	.396**	.156**	.103	.062	.157**	.147*	.131*	.512**	1	
12	.403**	.380**	.381**	.101	.121*	.014	.194**	.180**	.169**	.629**	.720**	1
M	3.29	3.32	3.23	3.25	3.18	3.53	3.23	3.25	3.49	3.36	3.11	3.23
SD	.45	.46	.49	.44	.48	.34	.48	.48	.37	.43	.44	.42
Sk	-.28	-.57	-.39	-.45	-.65	-.96	-.53	-.64	-.96	-.15	.04	.01
Ku	-.30	.71	.68	.60	1.29	1.11	.44	.52	1.13	-.76	.02	-.69

\*  $p < .05$ , \*\*  $p < .01$ , \*\*\*  $p < .001$

1: Children's self-esteem(1), 2: Children's self-esteem(2), 3: Children's self-esteem(3), 4: Mother's self-esteem(1), 5: Mother's self-esteem(2), 6: Mother's self-esteem(3), 7: Father's self-esteem(1), 8: Father's self-esteem(2), 9: Father's self-esteem(3), 10: Children's career maturity(1), 11: Children's career maturity(1), 12: Children's career maturity(3)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302)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C.R.	$\beta$	AVE	CR
Mother's self-esteem	Mother's self-esteem(1)	1.00			.80	.90	.97
	Mother's self-esteem(2)	1.12	.09	13.17***	.84		
	Mother's self-esteem(3)	.66	.06	12.12***	.70		
Father's self-esteem	Father's self-esteem(1)	1.00			.80	.89	.96
	Father's self-esteem(2)	1.04	.08	13.41***	.82		
	Father's self-esteem(3)	.73	.06	12.90***	.75		
Children's self-esteem	Children's self-esteem (1)	1.00			.84	.91	.97
	Children's self-esteem (2)	1.02	.07	15.58***	.83		
	Children's self-esteem (3)	1.05	.07	15.31***	.82		
Children's career maturity	Children's career maturity(1)	1.00			.69	.91	.97
	Children's career maturity(2)	1.19	.10	12.05***	.79		
	Children's career maturity(3)	1.31	.11	12.53***	.91		

\*  $p < .05$ , \*\*  $p < .01$ , \*\*\*  $p < .001$

자녀의 진로성숙도( $\beta=.247$ )에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의 자아존중감 또한 자신의 진로성숙도( $\beta=.519$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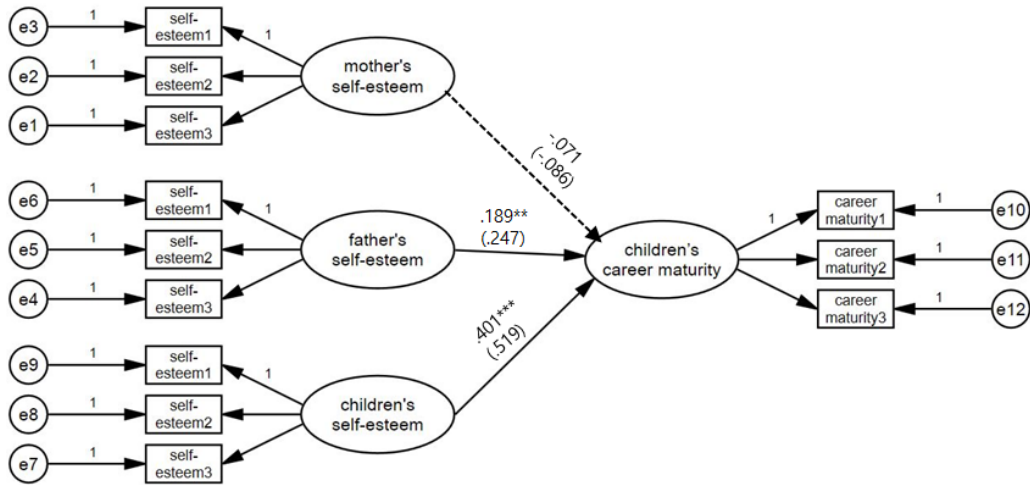
### 3.5 다집단 경로분석

초등학교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효과크기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경로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이 성립하는지 확

인하였다. 분석 결과, 남아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df=45$ ,  $N=143$ )=55.057,  $p > .05$ , TLI=.982, CFI=.988, RMSEA=.040, SRMR=.053, 여아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df=45$ ,  $N=159$ )=46.968,  $p > .05$ , TLI=.997, CFI=.998, RMSEA=.017, SRMR=.037로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아와 여아를 합친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chi^2$  ( $df=90$ ,  $N=302$ )=102.030,  $p > .05$ , TLI=.990, CFI=.993, RMSEA=.021, SRMR=.053으로 모형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형태동일성이 수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태동일성이 성립된 모형을 기저 모형으로 하여 모



\* p<.05, \*\* p<.01, \*\*\* p<.001

Fig. 1. Structure model

든 요인계수가 남아와 여아 집단에 동일하다고 가정할 완전측정동일성모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chi^2$  값 차이가 없었으며 [ $\Delta\chi^2(8) = 11.976(p>.05)$ ], TLI와 RMSEA 값 차이 ( $\Delta TLI = -.002$ ,  $\Delta RMSEA = .002$ ) 또한 없기 때문에 완전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경로계수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전제한 구조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chi^2$  값 차이가 없었으며 [ $\Delta\chi^2(3) = 1.844(p>.05)$ ], TLI와 RMSEA 값 차이 ( $\Delta TLI = .001$ ,  $\Delta RMSEA = -.001$ ) 또한 없기 때문에 구조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남아와 여아 집단 간에 어머니, 아버지,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Table 4.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chi^2$	df	TLI	CFI	SRMR	RMSEA (90% CI)
Configural invariance	102.030	90	.990	.993	.053	.021(.000 ~ .039)
Full metric invariance	114.006	98	.988	.991	.053	.023(.000 ~ .040)
Structural invariance	115.850	101	.989	.992	.054	.022(.000 ~ .039)

\* p<.05, \*\* p<.01, \*\*\* p<.001

Table 5.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Sons		Daughters		$\Delta\chi^2$	$\Delta df$
	b	$\beta$	b	$\beta$		
Mother's self-esteem → Children's career maturity	-.056	-.063	-.116	-.144	.185	1
Father's self-esteem → Children's career maturity	.184*	.223	.218*	.298	.066	1
Children's self-esteem → Children's career maturity	.352***	.434	.475***	.568	1.724	1
all strains					1.844	3

\* p<.05, \*\* p<.01, \*\*\* p<.001

####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가 다른지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분석과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12-14].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은 발달 단계별로 요구되는 진로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며[1, 2 재인용], 초등학교 시기에 요구되는 진로발달과업으로 계획성, 자기이해, 직업세계인식, 진로태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6-67].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26-27] 더 많은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버지는 자녀 발달에 어머니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9-50].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온정적 양육행동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5, 48]. 특히 본 연구의 표집 대상의 특징이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버지와 대화 및 활동 속에서 자녀의 진로 탐색 및 인식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에 진로성숙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부모 지원프로그램은 어머니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성이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학업능력[68-69]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많은 연구들은 대체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특성이 자녀의 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통제되었을 때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미치

는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직업과 관련된 진로성숙도 변인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진로성숙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매개변인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때문인지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반화 될 수 있는 결과인지 확인하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 결과, 자녀의 성별에 따른 자신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남아와 여아와 관계없이 자신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동일한 크기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진로성숙도 관련 연구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자아존중감뿐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다집단 경로분석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자아존중감 또한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통제되었을 때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크기는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



신과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한 학문적, 실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에 기초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진로 탐색 및 인식의 시작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의 한계로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만을 검증하였는데, 자녀 및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중심으로 한 간접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 자료에 기초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자녀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D. E. Super, "Vocational maturity in mid-careers",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Vol.6, pp.294-302, 1977. DOI: <https://doi.org/10.1002/j.2164-585X.1977.tb01242.x>
- [2] S. Coertse, J. M. Scheepers, "Some personality and cognitive correlates of career maturity", *SA Journal of Industrial Psychology*, Vol.30, No.2, pp.56-73, 2004. DOI: <https://dx.doi.org/10.4102/sajip.v30i2.150>
- [3] E. M. Lim, "Th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tudents' career matura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5, No.3, pp.667-680, 2004.
- [4] S. G. Niles, J. Harris-Bowlsbey, "Career development interventions in the 21st century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2009.
- [5] P. A. Creed, W. Patton, "Predicting two components of career maturity in school based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29, No.4, pp.277-290, 2003. DOI: <https://dx.doi.org/10.1177/089484530302900405>
- [6] S. H. Yoom, "A study on predictive factors for and gende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Vol.8, pp.97-124, 2011.
- [7] H. J. Kim, H. Y. Jo,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maturity of career attitudes on learning motiv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5, pp.201-221, 2017.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7.17.5.201>
- [8] J. H. Park, "The effect of elementary students' career maturity on class engagement: The mediating role of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6, pp.187-203, 2015.
- [9] S. M. Kim, C. H. Par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maturity, self-efficacy, and school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latent mean analyses of gender",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Vol.30, No.2, pp.291-316, 2017.
- [10] J. M. Yoo, B. W. Lee, "The effect of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with respect to the impact on school mal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ors*, Vol.41, No.2, pp.1-23, 2016.
- [11] W. S. Lim, Y. C. Kim,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parental support on the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school life adjustment mediated by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3, No.4, pp.31-51, 2015.
- [12] S. J. Song, J. M. Kim, "The influence of youth activity on career maturity: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4, pp.169-184, 2018. DOI: <https://dx.doi.org/10.22251/jlcci.2018.18.4.169>
- [13] K. H. Lee, M. H. Yoon, "The effect of parent factor,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mature career choice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6, No.1, pp.175-199, 2011.
- [14] H. M. Lee, J. Y. Chung,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 (GEP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2, pp.117-139, 2017. DOI: <https://dx.doi.org/10.21509/KJYS.2017.02.24.2.117>
- [15] H. Goelman, B. Zdaniuk, W. T. Boyce, J. M. Armstrong, M. J. Essex, "Maternal mental health, child care quality, and children's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 No.4, pp.347-356, 2014. DOI: <https://dx.doi.org/10.1016/j.appdev.2014.05.003>
- [16] S. J. Lee, G. T. Pace, J. Y. Lee, H. Knauer, "The association of fathers' parental warmth and parenting stress to child behavior problem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91, pp.1-10, 2018.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8.05.020>
- [17]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8] B. Bajaj, R. Gupta, N. Pande,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and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94, pp.96-100, 2016.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6.01.020>
- [19] H. Cheng, A. Furnham, "Early indicators of self-esteem in teenagers: Findings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116, pp.139-143, 2017.

- DOI: <https://dx.doi.org/10.1016/j.paid.2017.04.037>
- [20] G. MacDonald, M. R. Leary,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steem", In M. R. Leary, J.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pp. 354-377),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2013.
- [21] F. Kong, J. Zhao, X. You, "Self-esteem as mediator and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12, No.1, pp.151-161, 2013.  
DOI: <https://dx.doi.org/10.1007/s11205-012-0044-6>
- [22] C. Proctor, P. Linley, J. Maltby,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0, No.5, pp.583-630, 2009.  
DOI: <https://doi.org/10.1007/s10902-008-9110-9>
- [23] B. Blaine, J. Crocker, "Self-esteem and self-serving biases in reactions to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In R. F. Baumeister (Ed.),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pp. 55-85), New York: Plenum, 1993.
- [24] K. L. Sommer, R. F. Baumeister, "Self-evaluation, persistence, and performance following implicit rejection: The role of trait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8 No.7, pp.926-938, 2002.  
DOI: <https://dx.doi.org/10.1177/01467202028007006>
- [25] J. D. Brown, K. A. Dutton, "The thrill of victory, the complexity of defeat: Self-esteem and people's emotional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8, No.4, pp.712-722, 1995.  
DOI: <https://dx.doi.org/10.1037/0022-3514.68.4.712>
- [26] J. D. Brown, R. L. Collins, G. W. Schmidt, "Self-esteem and direct versus indirect forms of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3, pp.445-453, 1988.  
DOI: <https://dx.doi.org/10.1037/0022-3514.55.3.445>
- [27] U. Orth, R. W. Robins, K. H. Trzesniewski, J. Maes, M. Schmitt, "Low self-esteem is a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from young adulthood to old ag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18, No.3, pp.472-478, 2009.  
DOI: <https://dx.doi.org/10.1037/a0015922>
- [28] W. B. Swann, C. Chang-Schneider, K. L. McClarty, "Do our self-views matter? Self-concept and self-esteem in everyday life", *American Psychologist*, Vol.62, No.2, pp.84-94, 2007.  
DOI: <https://dx.doi.org/10.1037/0003-066X.62.2.84>
- [29] H. J. Jeon, M. S. Yoo, "The path analysis of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microsystem affecting adolescents' subjective happi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2, No.6, pp.75-104, 2015.
- [30] J. Y. Song, Y. M. Cheong, "The influence of abuse experience from parents on career maturity of the high school student: Focused on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GRI Review*, Vol.17, No.1, pp.107-131, 2015.
- [31] J. W. Jung,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26, No.1, pp.101-118, 2014.
- [32] J. W. Cha, H.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family environment, peer environment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26, No.3, pp.53-67, 2014.
- [33] M. N. Jung, J. E. Roh,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adolescents' career matur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3, pp.133-162, 2016.  
DOI: <https://dx.doi.org/10.14816/sky.2016.27.3.133>
- [34] S. B. You, "A study on effects of contextual suppor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16, No.1, pp.195-214, 2012.
- [35] P. A. Creed, W. Patton, D. Bartrum, "Internal and external barriers, cognitive style, and the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of focus and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30, No.4, pp.277-294, 2004.  
DOI: <https://dx.doi.org/10.1023/B:JOC.0000025116.17855.ea>
- [36] R. H. Crook, C. C. Healy, D. W. O'Shea, "The linkage of work achievement to self-esteem, career maturity, and college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5, No.1, pp.70-79, 1984.  
DOI: [https://dx.doi.org/10.1016/0001-8791\(84\)90037-X](https://dx.doi.org/10.1016/0001-8791(84)90037-X)
- [37] L. Di Giunta, G. Alessandri, M. Gerbino, P. Luengo Kanacri, A. Zuffiano, G. V. Caprara, "The determinants of scholastic achievement: The contribution of personality traits, self-esteem, and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27, pp.102-108, 2013.  
DOI: <https://doi.org/10.1016/j.lindif.2013.07.006>
- [38] P. Ertugut, R. Ertugut, "Stress and academic self-esteem in primary school children who applied to the hospital: A research in pediatric hospitals in Turkey",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2, No.2, pp.1200-1204, 2010.  
DOI: <https://doi.org/10.1016/j.sbspro.2010.03.172>
- [39] L. Fang, "Educational aspirations of Chinese migrant children: The role of self-esteem contextual and individual influences", *Learning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50, pp.195-202, 2106.  
DOI: <https://dx.doi.org/10.1016/j.lindif.2016.08.009>
- [40] C. K. Cheung, H. Y. Cheung, J. Wu, "Career unreadiness in relations to anxiety and authoritarian parenting among undergradu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Vol.19, No.3, pp.336-349, 2014.  
DOI: <https://doi.org/10.1080/02673843.2014.928784>
- [41] L. Halim, N. Abd Rahman, R. Zamri, L. Mohtar, "The roles of parents in cultivating children's interest towards science learning and careers", *Kasetsart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39, No.190-196, 2018.  
DOI: <https://doi.org/10.1016/j.kjss.2017.05.001>
- [42] S. C. Whiston, B. K. Keller, "The influences of the family of origin on career development: A review and 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32, No.4, pp.493-568, 2004.  
DOI: <https://dx.doi.org/10.1177/0011000004265660>
- [43] T. J. Tracey, R. W. Lent, S. D. Brown, S. Soresi, L. Nota, "Adherence to RIASEC structure in relation to career exploration and parenting style: Longitudinal and idiographic considerations", *Journal of Vocational*

- Behavior, Vol.69, pp.248-261, 2006.  
DOI: <https://dx.doi.org/10.1016/j.jvb.2006.02.001>
- [44] N. El Ghaziri, J. Darwiche, "Adult self-esteem and family relationships: A literature review", *Swiss Journal of Psychology*, Vol.77, No.3, pp.99-115, 2018.  
DOI: <https://dx.doi.org/10.1024/1421-0185/a000212>
- [45] E. M. Yeon, H. S. Choi, "Relations among work-parenting gains and strains, self-esteem, and parent-child interaction of married couple: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ediation mode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7, pp.497-523,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7.497>
- [46] L. Herz, E. Gullo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parenting style: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Australian and Vietnamese Australian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30, pp.742-761, 1999.  
DOI: <https://dx.doi.org/10.1177/0022022199030006005>
- [47] S. J. Kwon, J. Y.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family interaction, parenting stres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by mother",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9, No.4, pp.121-142, 2017.
- [48] J. S. Kim, "The influences of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s self-control: With mediation of warm parent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1, No.1, pp.29-49, 2017.
- [49] E. Flouri, 2010. "Fathers' behaviors and children's psychopatholo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30, No.3, pp.363-369, 2010.  
DOI: <https://dx.doi.org/10.1016/j.cpr.2010.01.004>
- [50] E. Goncay, M. H. M. van Dulmen, "Fathers do make a difference: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 alcohol use", *Fathering*, Vol.8, No.1, pp.93-108, 2010.  
DOI: <https://dx.doi.org/10.3149/ftf.0801.93>
- [51] B. S. Allport, S. Johnson, A. Aqil, A. B. Labrique, T. Nelson, A. Kc, Y. Carabas, A. V. Marcell, "Promoting father involvement for child and family health", *Promoting Father Involvement for Child and Family Health*, Vol.18, No.7, pp.746-753, 2018.  
DOI: <https://dx.doi.org/10.1016/j.acap.2018.03.011>
- [52] D. Luzzo, "Gender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ling & Development*, Vol.73, pp.319-325, 1995.  
DOI: <https://doi.org/10.1002/j.1556-6676.1995.tb01756.x>
- [53] J. W. Rojewski, R. C. Wicklein, J. W. Schell, "Effects of gender and academic risk behaviour on the career maturity of rural youth", *Journal of Research in Rural Education*, Vol.11, pp.92-104, 1995.
- [5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2015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escriptive report-", 2015.
- [55] <https://www.koweps.re.kr:442/data/guide/list.do>
- [56] M. W. Browne, R. Cudeck, "Single sample cross-validation indices for covariance structur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24, No.4, pp.445-455, 1989.  
DOI: [https://dx.doi.org/10.1207/s15327906mbr2404\\_4](https://dx.doi.org/10.1207/s15327906mbr2404_4)
- [57] L. Hu, P. Bentler, "Cutoff criteria for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6, No.1, pp.1-55, 199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9909540118>
- [58] D. Russell, J. Kahn, R. Spoth, E. Altmaier,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5, No.1, pp.18-29, 1998.  
DOI: <https://dx.doi.org/10.1037/0022-0167.45.1.18>
- [59] F. F. Chen,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14, No.3, pp.464-504, 2007.  
DOI: <https://dx.doi.org/10.1080/10705510701301834>
- [60] G. W. Cheung, R. B. Rensvold,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9, No.2, pp.233-255, 2002.  
DOI: [https://dx.doi.org/10.1207/S15328007SEM0902\\_5](https://dx.doi.org/10.1207/S15328007SEM0902_5)
- [61]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11.
- [62] R. P. Bagozzi, Y. Yi,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16, No.1, pp.74-94, 1988.  
DOI: <https://dx.doi.org/10.1007/BF02723327>
- [63] C. Fornell, D.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DOI: <https://dx.doi.org/10.2307/3151312>
- [64] J. Hair, W. Black, B. Babin, R. Anderson, R.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2006.
- [65] K. R. Park, H. S. Choi, E. M. Yeon,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ttitudes toward science, science inquiry skills, and science achievement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Vol.37, No.4, pp.669-677, 2017.  
DOI: <https://dx.doi.org/10.14697/jkase.2017.37.4.669>
- [66] Y. K. Ay, J. Y. Boo,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awareness sca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15, No.1, pp.25-51, 2009.
- [67] I. J. Chung, J. Y. Im, M. H. Hwang,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scale for elementary schooler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24, No.3, pp.169-194, 2011.
- [68] S. R. Park, B. R. No, H. J. Park, S. H. Yi, "Th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ffective parenting, and family flexibility on social competence of preschooler: An analysis of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using actor-partner independence model (APIM)",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1 No.1, pp.51-79, 2017.  
DOI: <https://doi.org/10.5718/kcep.2017.11.1.51>
- [69] J. A. Lee, J. E. Park, H. M. Chung, S. H. Yi, "The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s' emotional value of

children, parenting behavior, preschoolers' school readiness, and scholastic competence: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7, No.4, pp.453-477, 2017.  
DOI: <https://dx.doi.org/10.18023/kjece.2017.37.4.019>

---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인출